

막바지 막말·비방 과열 결국 도진 '진흙탕 선거'

순천·화순·목포 불법행위 20건 적발

강원도지사 엄기영 후보측 2명 영장

재보선 D-2

4·27 재·보궐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선거전이 과열됨에 따라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고발 등 네거티브 전략이 어김없이 등장,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24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지역 재·보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법 행위 건수는 고발 4건, 검찰 이첩 1건, 경고 15건 등 총 20건이다. 이 가운데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9건, 화순군수 재선거 8건, 목포시의원 재선거 3건 등이다.

이는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국 38개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100건)의 20%에 달하는 수치로, 그만큼 순천·화순 재·보궐선거가 과열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수 재선거의 경우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돼 선거위가 특별단속에 나섰음에도 최근 음식물 제공과 부재자 허위 신고,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발 또는 신고되면서 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A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 B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요양시설 원생들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시설 관계자 C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B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유권자 7명에게 교통편의를, 이들 7명을 포함한 21명의 선거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다른 자문위원 한 명도 선거구민 3명에게 교통편의와 함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또 모 요양시설 원장 C씨 등 3명은 인지 능력이 없는 원생 26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를 놓고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홍익식 후보측은 '부정 선거 연루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한 반면, 무소속 임호경 후보 선대본부는 "민주당 후보 측에서 식사제공과 허위 부재자 신고와 관련해 마치 임 후보가 사주를 한 것처럼 발언하고 있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홍 후보 연설원을 선관위에 허

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화순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또다시 극심한 과열과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연, 열연, 화연에 얽매이거나 돈이나 패거리의 위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깨끗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 강릉 경포의 한 펜션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주당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2일 낮 12시에 이곳을 급습, 현장에 있던 콜센터 관리자와 전화홍보원 등 3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24일 이들 중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일당 5만원의 급료를 선거가 끝난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김해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야당 공천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특임장관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이 우리 선거운동원에 의해 입수됐다"며 특임장관실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24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1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참가한 50여명의 드라이버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미완공됐던 가설스탠드 및 한옥 육교 건설 공사를 완료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F1 경주장 공사 완료

9만6천석 스탠드 완성

서킷 주변 단장도 마쳐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치러지는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이 마침내 준공됐다.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하드웨어'인 경주장 공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패스 질주'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미완공됐던 가설 스탠드 및 한옥 육교 건설 공사를 최

근 마무리하고 준공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경주장 부지 확정 측량도 모두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F1 경주장은 지난 대회 개막 당일 까지 일부 가설 스탠드가 완공되지 못하면서 부실 대회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고 최근까지도 스탠드 건설 공사가 등이 진행중이었다.

철골형(18개동)과 파이프형(7개동)으로 이뤄진 25개 가설 스탠드(9만6000여석) 가운데 중국에서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스탠드 공사의 경우 지난 18일까지 좌석(1만여석) 조립 공정이 마무리됐다. 백두정과 한라정 등 정식 자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한 한식 육교(길이 83m·폭 10m) 공사도 모두 완료됐다.

이로써 국내 최초 '그레이드 1'을 받은 국제 자동차경주장 건설 공사가 최종 마무리된 셈이다. 향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경주장 부지에 대한 양도·양수 문제만 매듭지어지면 정식 체육시설 인가를 거쳐 경주장을

임대, 수익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F1 경주장에서는 다양한 자동차 경주가 개최됐지만 미완성 체육시설로 정식 영업을 할 수 없어 공짜대회가 이어졌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간 입장 차이로 중단됐던 영암구 삼호읍 F1대회 경주장 부지(187만3000㎡)에 대한 감정평가 는 현재 한국감정원의 재감정이 진행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사, 내년부터 고교 필수

공무원·교사 임용 시험 반영도 확대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내년부터는 필수가 되는 등 각종 공무원 시험 한국사 반영이 확대되며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사 반영이 적극 권장된다.

초중고의 역사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게 바뀌고, 2013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사 소양을 갖춰야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2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 과목인 한국사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문과·이과·예체능계열, 인문계·

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고교생은 졸업 때까지 총 85시간(5단위) 안팎으로 한국사 과목을 배우야 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될 과목 가운데 필수가 된 과목은 한국사가 처음이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반영이 확대된다. 현장 교사들의 한국사에 대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2013년부터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에게만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행뉴스

'문화·내부 상상강좌' 제4탄 '현대미술과 백남준'

"동양정서와 서양기술 비디오 아트로 결합 '글로벌리즘' 추구한 진정한 아방가르드"

- 김홍희 前경기도미술관장
- 28일(목요일) 오후 4시 빛고을문화관 4층 다목적홀
- 문의: 062-670-7423, 062-220-0651

光州日報社·광주문화재단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대표이사 최금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제주도

오렌지&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 2박3일 목포-제주도 ₩139,000원~
- 2박3일 장흥-제주도 ₩159,000원~
- 2박3일 항공-제주도 ₩24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후원: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원~ 2박3일 ₩309,000원~
광주에서 출발하는 흥도 1박2일 ₩177,000원~

일본 큐슈 4일 5월 13일 단 하루!!!

"선착순 한정특가" 빌라형 콘도 숙박

₩199,000

불포함: 선내식 1식, 기사&가이드팁 (₩30,000), 광주→부산 수송비(₩30,000)